



단결과 연대로 책임지는 경주지부!

# 경주지부 집단교섭 속도 8호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전화 : 054-748-3223 팩스 : 773-9270 인터넷 : <http://gj.kmwu.kr> 발행일 : 2026.06.18(목)

## 사측 수정안 제출, 핵심 쟁점은 여전히 검토 중

**1개 조항(채용) 의견접근, 초기업 교섭·교섭권 보장·교섭의무는 수용거부**



금속노조 경주지부 제8차 집단교섭이 6월 18일(목) 14시, 아이티더블유 오토모티브코리아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정회 전 교섭에서는 7차 사측 제시안에 대한 노측 검토 입장이 전달되었다.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및 노사 공동 대지자체 요구와 관련해 노측은 “이 요구는 노사가 합의하지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지자체와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회사에 피해를 주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이 아님에도 논쟁이 이어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에는 노측 정진홍 지부장 외 20명, 사측 우영산업 김대근 본부장 외 12명이 참석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교섭에 들어갔다.

노측은 “조합 요구의 취지가 노사 지원 정책 시행 시 경주지역 금속 노사 지부집단교섭 참여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각종 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금속 노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섭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정진홍 지부장은 “오늘 8차 교섭이고 다음 교섭이면 결렬 여부를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난 7차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한 안에 대한 조합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측 제시안은 미래산업 대응 노사공동위원회에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축소되어 있고, 고용 문제에 국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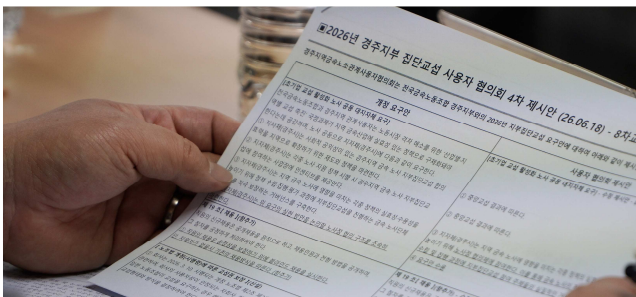
며, 고용뿐 아니라 시의 산업 및 노사관계 정책까지 포괄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과가 아닌, 경제국 차원으로 넓혀야 한다며 사측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채용 조항에 대해서도 노측은 사측 제시안을 수용거부했다. 노측은 지원자 또는 적격자가 없을 시 예외로 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직무 특성·전문성·간접성 등을 폭넓게 예외로 둘 경우 블라인드 채용 원칙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에 따른 교섭권 보장 조항 역시 수용거부했다. 노측은 사측 제시안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자회사·하청업체 문구가 빠진 점을 지적하며, 이 조항의 핵심은 자회사·하청업체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교섭을 중단하지 않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원안 취지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섭의무 조항은 지난 교섭에서 사측 수정안이 없어 조합의 검토 입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노측 입장 전달 이후 사측은 내부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했다. 14시 10분 정회에 들어간 교섭은 15시 5분 속개되었다.



정회 이후 사측은 초기업 교섭 활성화 조항과 채용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노조법 개정에 따른 교섭권 보장 조항과 교섭의무 조항은 여전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노측은 정회 후 제시된 채용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접

근을 밝혔다. 초기업 교섭 활성화 조항은 수정안을 검토한 뒤 차기 교섭에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경주지부는 남은 쟁점에 대해 사측이 책임 있는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차기 교섭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추가 발언이 없음을 확인하고 교섭은 마무리되었다. 차기 9차 교섭 일정은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사측제시안

### 1.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지자체 요구] - 수정 제시안 - 8차 교섭 (26.06.18)

- (요구안) 기재 생략
- (제시안) ①, ② 중앙교섭 결과에 따른다. ③ 지자체(경주시)는 지역 금속 노사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의 실효성,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정 협의체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금속 노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지부집단교섭 참여 주체들의 실질적인 거버넌스 활동을 보장한다. ④ 요구안 수용

### 2. 제 19 조 【 채용 】 (항추가) - 수정 제시안 - 수정 제시안 - 8차 교섭 (26.06.18)

- (요구안) 기재 생략
- (제시안)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인원과 전형 방법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① 직원의 채용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 단, 지원자 또는 적격자가 없을 시 기존의 채용방식을 따른다.

### 3. 【 노조법 개정(시행령)에 따른 교섭권 보장 】 - 추후 제출

- (요구안) 기재 생략
- (제시안) ①, ② 수정 제시안 검토중.
- ③ 요구안 수용